

ISSN 1229-8565 (print)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http://dx.doi.org/10.7856/kjcls.2016.27.1.49>

ISSN 2287-5190 (on-line)

27(1) : 49~65, 2016

27(1) : 49~65, 2016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귀농관련 특성과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 백 수 · 이 정 화[†]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생활과학연구소

The Effects of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and Conjugal Communic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Rural Migrants

Beagsu Kim · Jeonghwa Lee[†]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and conjugal communic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rural migrants. A total of 205 Korean baby boomers, who are living in rural areas in the year of 2013 that had migrated from cities back in 2003 with their families, were analyzed. Their age ranged from 49 to 57 year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asons these baby boomers chose a rural lifestyle were 'for life after retirement,' 'because rural life is good,' 'for health reasons,' and 'for chosen profession.' The level of conjugal communication (M=3.69) and life satisfaction (M=3.23) were higher than average (M=3.0). The variable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rural migrants were 'increased property size,' 'better conjugal communication,' 'better health condition,' 'lower levels of money,' and 'length of time spent farming.' Furthermore,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se variables are as follows: general characteristics 20%,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10%, and the level of conjugal communication 6%. These results show that conjugal communication is a very important variable, as well as a rural migrant characteristic when it comes to life satisfaction of these baby boomers. Therefor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 rural migrants, support programs need to focus on both farming and conjugal relationships.

Key words: baby boomers, rural migrants,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Conjugal communication, life satisfac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Korea(KRDA-2012).

Received: 30 December, 2015 Revised: 24 January, 2016 Accepted: 20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Jeonghwa Lee Tel: +82-62-530-1326 E-mail: jjjh0222@daum.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귀농·귀촌이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가구들로 인해 농촌사회의 활력이 증가하고 있고, 농산업을 위한 다양한 변화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 행렬에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¹⁾는 크게 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3).

한국사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바 있다. 귀농·귀촌관련 학자들은 은퇴 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할 사례를 조사 분석해 훗날 베이비부머의 농촌이주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Park 2006). 베이비부머의 탈도시화 현상은 한국사회보다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었던 서구사회와 일본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서구사회와 일본의 베이비부머는 1970~80년대 은퇴를 시작했었는데, 그들은 쾌적한 환경, 노후 소일거리 확보, 도시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 등의 이점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했다(Divoudi et al. 2004; Ni Laoire 2007; Sung et al. 2012). 한국의 베이비부머 역시 은퇴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1년 귀농·귀촌가구가 급증해 10,503가구였던 것이 2014년에는 44,586가구로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5).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총 714만 명이며, 전체인구 중 14.7%나 된다. 이중 54.2%는 농촌에서 출생해 초·중·고교를 졸업한 후 대학진학 및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특성을 지녀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을 근거해 농촌으로 이주를 선택할 마지막 세대로도 평가된다(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일부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85.8%가 '이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Kim et al. 2011). 또한 미국 은퇴자 협회(AARP)에서 '노후 거처로 일, 경제적 안정, 좋은 건강, 개인적인 성취감 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어(Rah et al. 2008) 농촌은 은퇴 후 베이비부머의 생활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는 젊은 시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역군으로 우리사회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세대로 노인세대 또는 자녀세대와는 상이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지녔다(Jeong 2012). 그들은 퇴직을 앞두고 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결혼까지 늦어지는 자녀와 동거하며 그들을 부양하는 경우가 65%, 생활수준 향상 및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한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68%나 된다. 이에 정작 베이비부머 자신의 경제적 은퇴준비는 미흡하거나 전혀 안 된 경우가 61.1%로(Korea Herald 2015)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삶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베이비부머의 자살률은 2001년 18.3명에서 2011년 40.6명으로 2.2배나 증가했다. 이는 10년간 매일 6.07명의 베이비부머가 자살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부 4쌍 중 1쌍은 결혼생활이 해체 위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Moonhwaillbo 2015).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 중 일부가 귀농·귀촌에 합류해 현재 귀농·귀촌 가구 급증추세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은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또는 고향에 대한 향수 등과 같은 낭만적 차원에서의 결정이 전부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외환위기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귀촌을 선택했던 귀농 1세

¹⁾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증하고 출생아 수도 급증하는 베이비 붐을 경험했는데, 이는 전쟁동안 별거하던 젊은 부부들이 재결합하거나 미루었던 결혼과 출산을 한꺼번에 하면서 출산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한다(Statistics Korea 2012).

대의 특성과는 좀 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베이비부머는 어떠한 동기에서 귀농·귀촌을 선택했고, 농촌으로 이주한 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특성은 농촌사회에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은 지방행정과 농촌사회의 활력 증가, 전통문화 유지존속, 농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농촌의 극심한 노동력 부족 해결,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도농통합, 국토의 균형발전 등과 같은 발전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몸소 농사를 배워가며 차세대 농촌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귀농의 경우는 앞서 제기된 베이비부머의 농촌이주를 통해 기대하는 내용들과 연동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 귀농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농촌사회에 이주한 귀농인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게 되는 데(Lee 1999;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Kim 2013; Kim et al. 2013a), 이는 베이비부머 귀농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베이비부머 귀농인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동시에 이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 귀농관련 연구들에서 조사되었던 귀농 자금, 귀농 준비기간, 영농활동 기간, 농번기·농한기 농사일 시간, 경작유형 및 규모, 작목선택 동기 등을(Lee 1998; Park 1999; Park et al. 2006; Kim et al. 2011; Kim 2013) 살펴봄으로써 베이비부머의 귀농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일반 귀농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동안의 귀농귀촌연구에서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에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중요변인으로 탐색되어 왔다(Lee 1999; Kim et al. 2004; Park et al. 2007; Kim et al. 2011; Lim 2012; Kim 2013; Kim et al. 2013b). 일반적인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는 36.4%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절반가량은 결혼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으며(Hankookilbo 2013), 부부 갈등 상황 때 '회피'하는 경우가 47%, 대화나 양보로 해결하는 경우는 8.8%로 나타나고 있다(Moonhwaillbo 2015). 사실 의사소통 수준은 이들의 부부관계를 살펴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Kim 1999), 베이비부머의 경우 부부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 수준이 좋지 못할 경우 이는 이들의 농촌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귀농생활 시작부터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부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이는 부부관계에, 더 나아가 이들의 농촌생활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귀농관련 특성,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농촌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어떤 변수의 영향력이 큰 지를 살펴봄으로써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귀농관련 특성과 농촌생활만족도

귀농개념은 사전적 정의, 행정기관의 정의, 연구자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귀농에 대해 국어대사전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감'(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3)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인 정의는 좀 더 구체적이다. 2007년 4월에 귀농인 지방조례를 최초로 제정, 실시했던 전남 강진군은 '만 20세~만 55세 이하인 자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강진군으로 전입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Gangjin Country Office 2012), 전북 순창군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농·임업을 목적으로 가족(2인 이상)과 함께 순창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 된 경우'(Sunchang Country Office 2012)로 제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귀농개념은 귀농 후 영농활동 종사여부, 도시에서의 체류 및 체류기간, 연령 제한, 전입신고 여부, 가족이주 여부, 이주 후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체류기간 또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귀농관련 연구자들도 자신의 연구의도와 목적에 따라 귀농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는데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Yoo 1998),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Lee 1998; Oh 2013), '도시에서 거주하지만 영농활동을 위해 농촌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와 '농촌으로 이주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Sung 2013), '도시생활을 하던 성인남녀가 가족과 함께 농촌사회로 전입해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Kim 2013)가 있다. 때문에 귀농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Kim 2011; Sung et al. 2012)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정의, 행정기관의 정의, 연구자들의 정의를 고려하여 이 연구대상자인 베이비부머와 관련하여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남녀로서 도시생활을 하다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현재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귀농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귀농한 베이비부머라 정의한다.

귀농유형은 출생지와 귀농지를 따져 구분하는 U-turn형(농촌출생→도시→고향농촌), J-turn형(농촌출생→도시→타향농촌), I-turn형(도시출생→농촌)으로 구분해 베이비부머의 귀농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귀농유형은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주요 변인으로 탐색되어 왔다(Lee 1998; Park 2006; Park et al. 2006; Park 2008; Kang 2010; Ko et al. 2011; Sung 2013). 이는 귀소성이 강한 문화적 특성과 고향의 농지나 집을 보존·관리하는 것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특성이 귀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며 실질적으로 귀농관련 연구에서도 고향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다른 귀농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1998; Park 2006; Park 2008; Kang 2010; Ko et al. 2011; Kim

2013; 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 Kim et al. 2015). 동시에 고향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 거주지 자산(local specific capital)의 이점이 농촌사회 적응과 생활만족도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ves 1974; Davanzo 1980; Lee 1998). 따라서 베이비부머 귀농유형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귀농인의 귀농자금은 주거 및 영농기반 마련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Kang(2010)은 귀농초기의 어려움으로 재배기술, 경영기술, 자금문제가 있고 귀농정착기로 갈수록 자금문제, 노동력 부족, 판로의 어려움이 제기된다고 했는데 자금문제는 초기부터 줄곧 귀농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다. 특별히 베이비부머 가계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해 전체 생활비의 20%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은퇴준비 비용보다 자녀의 결혼 및 교육비용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50% 정도가 은퇴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Han et al. 2011) 볼 때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경제력 또는 귀농 이주자금을 살펴보고, 귀농생활만족도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귀농관련 선행연구 결과 귀농 준비기간은 농촌사회 적응 또는 귀농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탐색되어 왔고(Lee 1998; Park 2006; Kim et al. 2015) 여러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Carlson 1998; Kim 2009;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2). 이에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이를 주목하여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고 있어 이는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 또는 귀농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귀농인의 농사 일 시간(농번기, 농한기)의 경우 '고되다는 특성'으로 63.7%가 귀농을 반대하는(Kim et al. 2004) 원인이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한 소득, 사회적 관계 형성,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적 특성도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귀농한 베이비부머에게 있어서 농사일 시간은 다양한 의미로 경험될 수 있어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최근 귀농현상이 영농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또는 향후 농산업에 대한 밝은 전망 때문에 농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인의 경작유형은 경종 52.7%, 하우스 13.1%, 과수원 17.0%, 축산 6.3%, 기타 10.9%순이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2013). 이에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경작유형과 경작규모를 살펴봄으로 귀농인 전체와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집단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귀농인의 작목선택 동기는 귀농동기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 중 귀농동기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아(Lim 1999), IMF 직후 귀농은 타의적 귀농현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실패 및 실직, 도시에서의 저소득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6). 하지만 IMF를 극복하고 국가경제가 차츰 호전되면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텃밭 등을 가꾸며 살기 위해'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욕구가(Yoon et al. 2005) 점차 확대되면서 작목선택에 대한 동기 또한 소득확보의 차원 이외의 목적이 더욱 부각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과 농촌생활만족도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는 인구규모면에서 볼 때 거대 집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지만 핵가족에 익숙한 자녀세대에게는 부양받지 못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베이비부머 중 65%는 미취업 성인자녀(평균 24세)와 동거하고 있고, 68%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Hankookilbo 2013), 이는 베이비부머 2/3가 자녀와 노부모 부양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자신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자녀를 적게 출산하게 되어 자녀 양육기가 짧아지면서 자녀 독립 후 부부만 생활

하는 빈동지 시기가 이전 세대에 비해 약 14배 증가할 것이며(Han et al. 2011), 은퇴 후 30년 이상 부부가 함께 살 것으로 예측된다(Kim et al 2012). 베이비부머에게도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78.4%가 '배우자'로 응답해(Jeong 2012) 노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4쌍 중 1쌍은 결혼생활이 해체 위험단계에 있고, 5쌍 중 1쌍이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어 노후준비로서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향후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Moonhwaillbo 2015).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과거로부터 줄곧 강조되어져 왔다(Lee 1998; Park et al. 2006; Kim 2009;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Kim et al. 2011). 남녀 귀농인 모두의 심리적 복지감에 결혼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Kim et al. 2013b), 남녀 귀농인 모두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비해 가족주의의 가치관을 지닌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탐색되었다(Kim et al. 2015). 이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에 '가족의 지지', '배우자의 지지' 등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부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친밀하고 상호관계 역시 재생산 과정을 겪으면서 지속되는데(Kim et al. 2012) 그 지속과정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핵심적 기능을 한다(Deacon et al. 1988). 베이비부머 귀농인은 귀농 후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적응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부부 의사소통 수준은 농촌생활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부부관계가 잠재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의사소통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 귀농한 베이비부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전남·북 지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2003년에서 2012년 사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현재 농사 활동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출생자)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예비조사는 2012년 10월 1일~2012년 10월 7일까지 전남북 농촌 지역에 귀농한 성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예비조사 중 발견된 문제점과 오해 소지가 있는 문항들을 수정한 후 동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연구원이 전남북 지역의 귀농인 협의회 모임이나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귀농학교의 행사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시간에 방문하여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응하는 대상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전남북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그 지역 귀농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는 형태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700부였고, 그 중 660부가 회수되었는데 설문문항에 충실히 답변하지 않아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만 귀농한 경우, 귀농은 했으나 아직 영농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사 당시 나이가 베이비부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후 최종 남성 144부, 여성 61부로 총 205부를 분석에 사용했다.

2. 주요변수3의 측정방법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려는 목적으로 귀농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조사되는 변인을 탐색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대상자와 베이비부머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해당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자산규모, 도시에서의 직업, 가

족유형이다. 이후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수는 회귀식에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는데 성별은 더미변수로, 그리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에서 대학이상에 이르는 1점에서 5점으로, 건강수준은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으로, 자산규모는 구체적인 숫자로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2) 귀농관련 특성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귀농관련 특성은 귀농유형, 귀농자금, 영농수입, 귀농 준비기간, 농번기 농사일 시간, 영농유형, 경작규모, 작목 선택 동기, 귀농동기로 구성했다. 각각의 질문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거나, 제시된 내용 중 응답자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영농규모는 평으로 기재하게 한 후 연구자가 m^2 로 변경하여 정리한 후 표로 제시했다. 귀농관련 특성 변인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모델에 투입되는데, 세 개의 귀농유형은 두 개의 더미변수로 만들어 투입하였고(UJ, UI), 귀농자금, 영농수입, 귀농준비기간, 농사일 시간은 가능한 한 구체적인 숫자로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Epstein et al.(1993)이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FAD(the Family Assessment Device)' 중 Kim (2001)이 번역해 사용한 척도에서 가족을 배우자로 변경하여 질문하였다. 문항으로는 '배우자가 기분이나쁘면 왜 그런지를 안다', '배우자는 빗대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배우자를 신뢰한다', '배우자는 애정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배우자는 결정할 일에 대해 함께 의논한다' 5문항이다.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좋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0.81이다.

4) 농촌생활만족도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Park(2006)이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에서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과 상관이 높을 것 같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제외한 이웃관계 만족도, 주거 만족도, 건강 만족도, 경제 만족도, 영농 만족도를 종합해 농촌생활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다. 이웃관계 만족도는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웃주민과 금방 친해졌다’, ‘마을 주민에게서 거리감을 느낀 적이 없다’, ‘마을 주민으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 ‘여러 모임(작목반, 귀농·귀촌 협의회 등)에 참석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될 수 있으면 도시로 다시가고 싶다’로 5문항으로 이웃관계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나쁨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마지막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했다. 주거 만족도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생활하기가 편리하다’ 1문항으로 주거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 만족도는 Lee et al.(2003)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 중 ‘너무나 슬퍼서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다’, ‘한 가지 일이나 생각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생활에 활기가 넘친다’, ‘건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기분이 차분하고 평화롭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10문항으로 건강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나쁨을 의미한다. 경제 만족도는 ‘현재 경제적 형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1문항으로 건강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나쁨을 의미한다. 영농 만족도는 ‘어떤 작목을 선택할 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땀 흘리며 일할 때가 정말 즐겁다’,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다른 농사를 찾기보다 현재하는 농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농사기술을 배우는 것은 힘들지 않다’로 5문항으로 영농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점수가 낮을수록 나쁨을 의미한다. 전체 농촌생활만족도는 총 22문항으로 측정

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몇 개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낮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0.85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WINDOW용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귀농관련 특성,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농촌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Table 1을 보면 조사 참여자는 총 205명이었고, 이 중 남성은 70.2%(144명), 여성은 29.8%(61명)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9세는 10.7%(22명), 50세~54세이하는 59.5%(122명), 55세~57세는 29.8%(61명)였는데 전반적으로 연령분포는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3.7%(28명), 고졸 47.8%(98명), 대졸이상은 38.5%(79명)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86.3%(177명)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는 1억미만이 21.0%(43명)이긴 했지만 2억이상의 경우가 63.1%(129명), 여기에 4억이상은 29.9%(61명)가 포함된 것을 근거할 때 과거 경제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귀농했던 외환위기 직후 귀농 1세대의 경제적 특성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본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			
Variables	Category	N	%	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144	70.2	Family type	Couple only	107	52.2
	Female	61	29.8		Couple+children	63	30.8
Age	49years old	22	10.7		Couple+elderly parents	17	8.3
	50 ~ below 54years old	122	59.5		Couple+elderly parents+children	18	8.8
	55 ~ 57years old	61	29.8				
Educational level	Below middle school	28	13.7	Former job in the city	Professional	4	2.0
	High school	98	47.8		Executive	20	9.8
	More than college	79	38.5		Office worker	23	11.2
Health level	Bad	28	13.7		Engineer	18	8.8
	Normal	98	47.8		Worker	3	1.5
	Good	79	38.5		Manager	10	4.9
Amount of property (unit: 1,000₩)	Under 100,000₩	43	21.0		Self-employment	87	42.4
	100,000₩~ under 200,000₩	32	15.6		Service worker	4	2.0
	200,000~under 400,000₩	68	33.2		Homemaker	24	11.7
	More than 400,000₩	61	29.9	Other ¹⁾	12	5.8	

¹⁾ Other among former job in the city are 'clerics' 3 people, 'lecturer' 3 people, 'unemployed' 5 people, 'student' 1 people.

가족유형은 부부동거의 경우가 52.2%(107명)로 가장 많았고, 부부+자녀동거 30.8%(63명), 부부+노부모+자녀동거 8.8%(18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자녀동거 형태의 귀농도 적지 않았지만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가족형태는 주로 빈둥지 시기의 부부만 귀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이전 직업분포에서는 자영업이 42.4%(87명)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사무직, 관리직 순이었다.

2) 귀농관련 특성

귀농관련 특성 중 귀농유형은 고향농촌으로 이주한 U턴 형 41.5%(85명), J턴 형 32.7%(67명), I턴 형 25.9%(53명)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활의 경험이 있는 U턴 형과 J턴 형이 74.2%(152명)로 농촌경험이 없는 I-turn형 25.9%(53명)에 비해 더 많긴 했지만

농촌생활 경험이 없는 경우도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귀농자금은 1억원이상이 37.2%(77명)였고, 이 중 2억원이상은 13.7%(28명)였다. 귀농 준비기간은 6개월 미만이 19.9%(20명)이며 6개월 이상은 80.1%(185명)였고, 이중 2년 이상 귀농을 준비했던 경우도 35.1%(72명)인 것을 볼 때 귀농에 대한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자세가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활동 기간²⁾은 평균 3.67년(SD=2.92)이며, 4년 이하가 70.7%(145명)였는데, 이는 귀농 후 영농활동을 곧바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최근 귀농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영농소득은 3천만원 미만이 79.1%(162명)였고, 이중 천만원 미만은 두 명 중 한 명 꼴이라 할 수 있

²⁾ 본 연구에서 귀농년도와 영농활동 기간을 함께 조사했지만 귀농년도와 영농활동 기간이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영농활동 기간만을 다루었다. 귀농년도 분포를 보면 2008년 이하 37.1%(76명), 2009~2010년 28.3%(58명), 2011년 이상 34.6%(71명)로 나타났다.

Table 2.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N	%	M(SD)
Type of rural migrant		U-turn	85	41.5	
		J-turn	67	32.7	-
		I-turn	53	25.9	
Rural migrant cost (₩)		Less than 50million	67	32.7	
		50million~under 100million	61	30.1	-
		100million~under 200million	49	23.5	
		More than 200million	28	13.7	
Farming income (₩)		Under 1TM ¹⁾	98	47.9	
		1TM~under 3TM	64	31.2	-
		3TM~under 5TM	22	10.6	
		5TM~under 1HM	14	6.9	
		more than 1HM	7	3.4	
Preparation period		Under 6months	41	20.0	
		6months~ under 1year	46	22.4	-
		1year~ under 2years	46	22.4	
		More than 2years	72	35.1	
Period of farming activities		Below 2years	95	46.3	
		3years~ below 4years	50	24.4	3.67(2.92)
		More than 5years	59	28.8	
Farming work time a day	Spring~Fall	Below 5hours	70	34.1	
		6hours~below 10hours	96	46.8	7.55(4.05)
		More than 11hours	39	19.0	
	Winter	No work	48	23.4	
		Below 5hours	102	49.8	3.59(3.17)
	More than 6hours	55	26.8		
Agriculture type* (Range)		Upland farming (66m ² ~47,934m ²)	137	44.1	4,453m ²
		Rice paddy farming (33m ² ~66,116m ²)	70	22.5	11,193m ²
		Orchard (397m ² ~99,174m ²)	41	13.2	11,147m ²
		Greenhouse (165m ² ~19,835m ²)	36	11.6	3,878m ²
		Livestock ¹⁾	25	8.0	
		Other(arboriculture)	2	0.6	
Reason of crop choosing*		For income	63	16.8	
		Agricultural technology is easy.	62	16.6	
		For intake(Vegetable gardening to eat)	59	15.8	
		I just wanted to do it for a long time.	47	12.6	
		recommendation of other people.	38	10.2	
		I learned about the crops.	31	8.3	
		Follow successful farmers	26	7.0	
		I have experienced it in the past.	23	6.1	
		Recommend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18	4.8	
	Other(Sales are easy. etc.)	7	1.8		
Reason of rural migration*		For life after retirement	104	22.7	
		Because I like rural life	101	22.1	
		For health of myself and my family	84	18.3	
		For chosen profession	64	14.0	
		Spouse's want	34	7.4	
		Positive prospect on agriculture	31	6.8	
		Succeed to father's profession	21	4.6	
		Unemployed in the city	17	3.7	
	Other	2	0.4		

¹⁾ TM- ten million, HM- hundred million

²⁾ The livestock(25 people) are korean cattle : 14people, poultry : 5 people, milk cow : 3 people, black goat 2 people, pig 1 people.

³⁾ * is multiple responses. It includes Agriculture type(farming size), reason of crop choosing, reason of rural migration.

는 47.9%(98명)였다. 물론 5천만원 이상도 10.3%(21명)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영농소득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이는 귀농 후 영농기간이 얼마 안된다는 점, 영농을 통한 소득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대상자들 중 영농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대체되고 있어 영농을 통한 소득에 크게 주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농번기 농사일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7시간이었고 하루 평균 7.55시간(SD=4.05) 일하고 있으며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9.0%(39명)였으며 농한기 농사일 시간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로부터 최대 12시간이었고, 농한기 하루 평균 3.59시간(SD=3.17)이었고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26.8%(55명)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귀농인 중 76.6%(157명)가 농한기에도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와 개중에는 축산에 종사하는 경우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경작유형은 밭농사, 논농사, 하우스, 과수원, 축산, 기타 등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겸하고 있기에 복수응답 형태로 조사했다. 밭농사는 44.1%(137명)가 최소 66m²(20평)에서 최대 47,934m²(14,500평)를 경작하였고 1인당 평균은 4,453m²(1,347평)였다. 밭농사가 다른 경작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분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밭농사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과 수확의 주기가 짧아 여러 작물을 윤작할 수 있어 영농에 대한 경험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영농기술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농사는 22.5%(70명)가 최소 33m²(10평)에서 최대 66,116m²(2만평)를 경작했고 1인당 평균은 11,193m²(3,386평)였으며 과수원은 13.2%(41명)가 최소 397m²(120평)에서 최대 99,174m²(3만평)를 경작했고 1인당 평균은 11,147m²(3,372평)였다. 시설하우스는 11.6%(36명)가 최소 165m²(50평)에서 최대 19,834m²(6,000평)로 1인당 평균은 3,878m²(1,173평)였다. 축산은 8.0%(25명)가 닭, 돼지, 젓소, 한우, 흑염소 등을 사육했으며 경작유형 중 기타에는 조경 0.6%(2명)도 포함되었다.

작목선택 동기에 대한 복수 응답결과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손쉬운 작목이기 때문에', '집에서 섭취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해보고 싶던 작목이기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에게 있어서 영농활동은 단순 소일거리 차원을 넘어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귀농동기에 대한 복수 응답결과를 보면 '퇴직 후 여생을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베이비부머의 귀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Table 3) 중간점수보다 높은 3.69점(0.64)이었다. 5문항 모두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 중 '배우자를 신뢰한다'가 3.91점(0.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는 애정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이다'가 3.44점(0.9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njugal communication

	Category	M (SD)
1	I do know the reason, when the feeling of my spouse is bad.	3.69(.78)
2	My spouse always tell the truth.	3.80(.82)
3	I trust my spouse.	3.91(.82)
4	My spouse is active in expressing to affection.	3.44(.91)
5	My spouse discuss with me about what happened.	3.63(.93)
	Total	3.69(.64)

4) 농촌생활만족도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Table 4) 중 건강 만족도는 3.56점(0.65), 경제만족도는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은 2.93점(0.72)이었으나 농촌생

활만족도는 중간점수인 3점보다 약간 높은 3.23점 (0.48)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Table 4. Life satisfaction

Category	M (SD)
1 Satisfaction on the neighborhood	3.38 (.66)
2 Satisfaction on the dwelling	3.28 (.96)
3 Satisfaction on the healthy	3.56 (.65)
4 Satisfaction on the economy	2.93 (.72)
5 Satisfaction on the farm work	3.23 (.68)
Total	3.23 (.48)

2.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귀농관련 특성과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의 영향력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한 귀농관련 특성과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의 설명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귀분석모델이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Attachment 1). 그 결과 독립변수간 상관관계수 상관계수가 0.70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변인은 없는 것(Jeong et al. 2001)으로 판단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이 모형의 독립변인 중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자산규모이고 귀농관련특성 변인은 귀농유형1 U1, 귀농유형2 U1, 귀농자금, 영농수입, 귀농준비 기간, 영농기간, 농번기 농사일 시간, 농한기 농사일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부부의사소통 수준이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이후 데이터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극단치, 잔차의 정상성, 동변량성, 선형성, 잔차항의 독립성,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극단치 제거를 위해 산포도, 정상확률 Plot, Cook의 거리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산포도, 정상확률 Plot에서 극단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Cook의 거리 최대치는 0.09로, 1보다 크지 않아(Yang 1998) 극단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정상성, 선형성, 동변량성은 산포도로 확인했다. 잔차항 간의 독립성 확인을 위해 Durbin-

Watson의 d통계치를 살펴보았는데 그 값이 2.01이었는데, 이는 값이 2에 접근하므로(Yang 1998) 잔차항 간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살펴보았다. VIF값이 1.06~1.97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VIF값이 10보다 적기 때문에(Yang 1998)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로 모델 I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이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단계 모델 II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통제하고도 귀농관련 특성 변인이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3단계 모델 III에서는 모델 II에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변인을 추가 투입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 귀농관련 특성 변인을 통제하고도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설명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했다.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이 독립변수간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볼 수 있다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은 이에 더하여 각 변수군의 추가 설명력과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본 연구의 목적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Table 5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인이 농촌생활만족도에 갖는 설명력은 20%였다. 구체적으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연령최대 57세)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모델 I에 귀농관련 특성 변인을 추가 투입한 모델 II의 설명력은 10%가 증가해 30%로 나타났으며 추가 설명력과 전체 설명력 모두 유의미했다. 투입된 변인들 중 귀농자금과 영농활동 기간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경우 귀농자금이 적을수록, 영농활동 기간이 오래일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II에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을 추가 투입한

모델 III의 설명력은 6%가 더해져 36%였다. 투입된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과 모델 II에서 줄 곧 영향변인으로 탐색되던 성과 연령은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변인의 투입으로 상쇄되어 모델 III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성과 연령이 농촌생활만족도에 갖는 영향력을 상쇄시킬 정도로 그 의미와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귀농관련 선행연구에서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 적응이나 농촌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Lee 1998; Kim et al 2004; Park et al 2007; Kim 2009;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Kim et al 2011; Kim 2013)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도 중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할 때 귀농한 부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은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귀농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결국 귀농을 통해 기대하는 농촌사회의 바램을 한층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 모델을 중심으로 영향변인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자산규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귀농자금, 영농활동기간 순이었다. 이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귀농자금이 적을수록, 영농활동 기간이 많을수록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자산규모의 경우, 귀농 후 일상생활의 편리함

Table 5. Influence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Independent variables							
General characteristics	Sex	-.18	-.18*	-.15	-.15*	-.13	-.12
	Age	.03	.14*	.03	.15*	.03	.13
	Education level	-.04	-.07	-.02	-.04	-.03	-.05
	Health level	.16	.23**	.19	.28***	.14	.21**
	Amount of property	.06	.26***	.08	.34***	.07	.30***
Rural migrant characteristics	Rural migrant type1 (UJ)			.10	.10	.12	.12
	Rural migrant type2 (UI)			-.09	-.09	-.10	-.10
	Rural migrant cost			-.04	-.18*	-.04	-.19*
	Farming income			.05	.12	.05	.13
	Preparation period			.01	.03	.02	.06
	Period of farming activities			.03	.17*	.03	.16*
	Farming work time (spring~fall)			-.01	-.09	-.01	-.07
	Farming work time (winter)			-.01	-.05	-.01	-.06
Conjugal communication						.19	.26***
Adjusted R ²		.20		.30		.36	
R ² change				.10**		.06***	
F		8.79***		5.43***		6.47***	

*** p<.001, ** p<.01, * p<.05

Dummy variables: Sex: (male 0, Female 1), rural migrant type: (U-turn 0, J-turn 1), rural migrant type2: (U-turn 0, I-turn 1).

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주거시설, 경작을 위한 영농기반 시설 그리고 귀농 후 뚜렷한 소득원이 없을 귀농초기 1~2년 동안의 생활비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어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질병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Edwards 1973; McClelland 1982)와 동일했다. 일반적으로 농사일 자체가 사람의 근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귀농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건강변인이 남녀 귀농인 모두의 결혼만족도(Kim et al. 2015)나 농촌생활만족도(Park 2008)의 영향변인으로 탐색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특히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경우 단순한 소일거리를 마련을 위한 목적보다 농산물을 통한 영농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변인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또한 귀농자금은 선행연구 중 귀농자금이 많을수록 은퇴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Park et al. 2006)과, 귀농여성의 결혼만족도(Kim et al. 201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베이비부머 귀농인에게서는 귀농자금이 적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와 해석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경우도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어려움내지 불안감이 동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귀농초기 주거와 영농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부담, 농산물을 통한 소득의 저조, 그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영농활동기간이 오래일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귀농 후 농촌사회에 적응을 위해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들과(Kang 2006;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그 의미가 상통한다고 본다. 귀농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손 쉬울 것 같은 농사일을 막상 접하다보면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해 영농기술을 습득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게 된다는 내용(Kim 1999; Jyung 2001)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번의 농사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농촌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귀농관련 특성과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의 설명력, 그리고 영향변인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2003년~2012년 사이 전남·북 농촌지역에 이주해 현재 농사활동을 하는 1955년~1963년에 해당하는 남녀 베이비부머 205명의 자료를 근거로 WINDOWS 용 SPSS 21.0을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고, 연구의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205명 중 남성 70.2%, 여성 29.8%였고, 연령은 49세~57세 사이에 골고루 분산된 편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3.7%, 고졸 47.8%, 대졸이상 38.5%였는데, 전국 베이비부머에 대한 조사결과인 중졸 17.3%, 고졸 44.7%, 대졸이상 15.8%(Statistics Korea 2012)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상이 86.3%로 은퇴 후 귀농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Park(2006)의 연구인 78.6%에 비해 비교적 좋은 편에 해당했다. 자산규모는 4억이상이 29.9%로, 과거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귀농했던 경우와 최근 귀농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가족유형은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52.2%, 자녀와 함께 귀농한 경우 39.6%였다. 이는 조사대상자 절반이상이 빈둥지 시기에 귀농한 것을 의미한다.

귀농이전 직업은 자영업, 전업주부, 사무직, 관리직, 생산직 순이었는데, 특히 자영업이 다른 직업유형에 비해 42.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 직종에 비해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개·폐업이 쉽게 결정될 수 있다는 특성과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시점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영농 비즈니스를 구상해 귀농했을 가능성 등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귀농관련 특성 변인 중 귀농유형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Kim et al. 2004; Kim et al. 2011; Kim 2013) 고향농촌으로 이주한 U턴 형이 41.5%로, 타향농촌으로 이주한 J턴 형이나 도시출생자가 농촌

으로 이주한 1턴 형보다 더 높았다. 귀농자금은 1억 원이상이 37.2%에 불과해 충북 괴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의 평균 이주자금인 1억원과(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비교해 적었다. 귀농준비 기간은 80%가 6개월 이상이었고, 2년 이상의 경우도 35.1%였다. 이는 최근 귀농·귀촌 현상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행정 활력을 위해 귀농·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소득은 3천만원 미만이 79.1%(162명)로 베이비부머 귀농인 대부분의 영농소득은 높지 않았다. 물론 귀농 후 영농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영농을 통한 소득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대상자들 중 영농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영농을 통한 소득에 크게 주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지만 영농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귀농현상이 단순 농촌으로의 거주지 이전을 넘어 농촌사회와 농산업을 위한 활력으로 변질 수 있다고 본다.

영농 활동기간은 평균 3.67년인데, 본 조사에서는 귀농년도와 영농기간이 거의 일치해서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경우 영농규모가 크든, 작든 귀농과 함께 농사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평균 7.55시간이었으며, 11시간 이상도 19.0%였다. 이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농촌현실에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가족 노동력이 적극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노동은 건강을 훼손해 가족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한기 하루 농사일 시간은 평균 3.59시간이었으며, 조사대상자 중 76.6%가 농한기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배주기가 짧은 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농업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작유형은 밭농사, 논농사, 과수원, 시설하우스, 축산 순이었는데 조사대상자 중 44.1%가 밭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사의 경우 경작방법이

비교적 쉽고, 실생활에서 섭취할 수 있는 식료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과 재배주기가 짧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타 경작유형에 비해 활발할 수 있어 이러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작목선택 동기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 '손쉬운 작목이기 때문', '집에서 섭취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해보고 싶던 작목이어서'순이었다. 이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귀농이 노후 소일거리 마련을 위한 소극적인 측면이 아닌 농산업을 활용한 영농 비즈니스를 목적에 둔 적극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귀농 동기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로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기 위해', '농촌생활을 좋아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귀농인은 노후의 생활공간으로 도시보다 농촌이 더 유익하다는 결론으로 귀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 생애를 통해 근면과 성실이 강조된 삶을 살아온 베이비부머가 노후의 비생산적인 삶을 무미건조한 것으로 판단해 노후에도 정년이 없는 영농활동을 통해 생산적 노년을 보내려는 목적에서 귀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셋째,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3.69점(0.47)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아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실 조사대상자 중 52.2%는 막내자녀 독립 후 부부로만 구성된 '빈둥지 시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U자 형태로 설명된다(Levenson et al. 1993). 이는 빈둥지 시기에 결혼초기와 비슷하게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이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부부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베이비부머 세대 4쌍 중 1쌍은 결혼생활이 해체 위험 단계에 있고 5쌍 중 1쌍 꼴로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겨우 부부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삶을 위해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측면, 즉 부부관계를 위한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Moonhwaibo 2015),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이 본래부터 좋았는지,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빈둥지 시기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귀농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를 서로 협력하면서 해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부 의사소통 수준이 좋아지게 되었는지는 차후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는 중간점수인 3점보다 약간 높은 3.23점(0.48)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활만족도의 하위요소인 이웃관계만족도, 주거만족도, 건강만족도, 농사일만족도 등은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았으나 경제만족도는 2.93점(0.72) 수준이었다.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과 행정기관은 경제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방안 마련을 통해 귀농 후 농촌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베이비 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변인으로는 자산규모,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귀농자금, 영농활동 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의 경제력은 모든 귀농인에게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국토균형발전, 지방행정 활력 증강, 농촌사회 존속유지, 농산업의 혁신적 발전 등이라는 보다 대의적인 차원에 의미를 두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40여년 이상 한국사회의 흐름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예상되었듯 최근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현상은 이들의 은퇴가 시작된 직후부터 급증 추세를 보였다. 베이비부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해 자산규모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은 일반 귀농인에게도 그 중요성이 마찬가지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인은 농촌의 생활양식을 습득하며, 이러한 과정은 귀농인으로 하여금 문제해결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한다. 이때 부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부부 서로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얻게 될 수 있고, 결국 건강한 부부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개인 및 사회적 노력은 결국 귀농을

통한 기대를 충족시켜 지속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만족도에 주관적 건강상태와 영농기간이 영향변인으로 탐색된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귀농자금이 적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예비 귀농인이란 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일명 '억대 귀농'을 롤 모델로 삼아 귀농 초기부터 큰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동시에 귀농 후에 대한 지출을 대비해 미리 경제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 또한 동반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 농촌과 지방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자살 및 가족해체 등이 증가하는 현 사회적 상황에서 귀농한 베이비부머의 농촌생활만족도와 부부관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 수준이 좋은 편으로 나타난 것은 농촌에서의 삶이 베이비부머 귀농인에게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 귀농한 베이비부머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내지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조사대상자가 전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베이비부머 귀농인 부부 함께 조사해 이들의 부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지 못했다는 점, 베이비부머 세대 귀농인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으로 사례수가 많지 않고 남성의 수가 더 많다는 점, 그리고 귀농이 부부간 의사소통 수준을 향상시켰는지 아니면 의사소통 수준이 좋은 부부가 귀농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는데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sia Today(2013) 'The baby boomer who commit suicide are rising about six daily'. Available from <http://blog.daum.net/bstaebst/8912> [cited 2013 February 27]
- Chungbuk Research Institute(2011) Review: the return

- rural in chungbuk
- Chung HS(2001) A theoretical review for developing a korean type marital satisfaction scale. J Korean Home Econ Assoc 39(11), 89-106
- Davanzo J(1980) Microeconomic approaches to studying migration decisions. California: The Rand Corporation
- Deacon RE,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Divoudi S, Wishardt M, Gilligan J(2004) Visitors, tourists and outsiders in a cornish town, The Yorkshire and Humber, Regional Review Counter-urban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Ryedale, 65-82
- Edwards JN, Klemmack DL(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 Geron 28, 497-502
- Eptein N, Bishop D, Byan C, Miller I, Keitnor G(1993) The mcmaier model: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Gangjin Country Office(2012) Ordinance on supporting for rural migrants
- Graves NB(1974) Adaptive strategies in urban migration. Annual Re Anthropol 3, 117-151
- Han GH, Choi HJ, Eun GS, Lee JH, Joo SH, Kim JH(2011)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n Aging
- Hankookilbo(2013) 'Baby boomer generation, crash the quality of life'. Available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385106> [cited 2013 May 3]
- Jeong CY, Choi IK(2001) Spss statistical analysis using windows, trade management corp
- Jeong HM(2012)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rural experiences and farming settlement of new-farmers in kore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Jeong KH(2012) An outlook of baby boomers' old age life. Health Welfare Policy Forum 187, 40-49
- Jyung CY(2001)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of agricultur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willing to return to the farm, agricultural education, rural HRD. J Korean Agricult Educ 32(1), 1-26
- Kang DK(2006) Adoption process with return types of return farmers, agricultural education, rural HRD. J Korean Agricult Educ 38(2), 23-53
- Kang DK(2010) Pres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 of people return to farm and rural areas. J Agricul Ext Community Develop 17(4), 743-771
- Kim BS(2013) An ecological systematic analysis on the rural society adjustment of urban migrants to rural.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 Kim BS, Lee JH(2013a)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community consciousn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migrant: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J Community Welf 47, 361-382
- Kim BS, Lee JH(2013b) An ecological systematic analysis on the rural society adjustment of urban migrants to rural. Korean Rural Sociol Soc 23(2), 7-48
- Kim BS, Lee JH(2015)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le and female rural migrants: migrant characteristics and family values. Korean J Community Living Soc 26(3), 471-488
- Kim CH, Byen PS(2011) Retirement of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in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Kim CK, Lee HJ, Kim KH, Park MS(2011) The study on successful adjustment of the rural migrant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rural societ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Kim HJ(1999) A Study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in Pusan and Kyungnam region. Inje University in Korea 15(1), 245-262
- Kim JH(1999) U-turn farmers' source and use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Kim JS(2009) What can local governments do to help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J Agricul Ext Community Develop 16(3), 533-556
- Kim JS(2011) The policy directions and the task for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J Agricul Ext Community Develop 18, 5-27
- Kim MH, Moon JH, Shin EK(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jugal relations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for old age - Focus on the comparison with the pre-elderly. J Korean Family Relat 17(3), 211-239
- Kim MO(2001) A study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 Kim SS, Cheng JW, Lim HB, Koh WM, Lee S(2004) Direction of program development for supporting u-turn farmers' rural settlement. J Agricul Ext Community Develop 11(1), 53-65
- Ko SH, Kim DH(2011) Analysis of trainee's characteristics & satisfaction on education for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in Jeju. J Agricul Ext Community Develop 18(4), 983-1010
- Korea Herald(2015) 'No answer after being retired baby boomers'. Available from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50303000743&md=20150312125912_BL [cited 2015 September 28]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12) Review: benefit analysis of the rural migrants phenomenon
- Lee DW(1998) Rural adaptation and related variables of rural migra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JH, Han GH, Park GJ, Lee HK(2003)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J Korean Soc Rural Plan 9(3), 1-7

- Lee JH, Han GH(2003) The effects of work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Korean Rural Soc* 13(1), 209-238
- Levenson RW, Carstensen LL, Gottman JM(1993) Long-term marriage: age, gender and satisfaction. *Psychol Aging* 8(2), 301-313
- Lim CH(2012) The family strengths and adjustment to rural life of family returning to rural community before retirement in old age. *J Family Relat* 16(4), 201-232
- Lim HY(1999) Urban-rural return migrants' adaptation and welfare: a study on migrants in chonnam province. Master's Thesis, Kwangju University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2012) The research on the rural migrants in Kore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2013) The research on the rural migrants in Kore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2014) The research on the rural migrants in Korea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2015) The research on the rural migrants in Korea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2) OECD Korean city policy report
- Munhwailbo(2015) Babyboomers marriage crisis. Available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93001030621080001> [cited 2015 September 30]
- McMillan DW, Chavis DM(1986) Sense of community: a theory and definition. *Am J Community Psychol* 14, 6-23
- Ni LC(2007) The green grass of home? Return migration to rural ireland. *J Rural Stud* 23(3), 332-344
- Oh SH(2013) A discussion on the moving in-settling down circumstances of the families returning to the countryside for farming or else and how to support them. Master's Thesis, Gongju University
- Park EK(2008) The study of the satisfaction on the rural migrants. Master's Thesis, UOS
- Park GJ(2006) The study of migration preparation and adaptation to rural area of returning farmer after retirement.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 Park GJ, Kim YH, Park JY, Yoon SD(2007) The study of migration preparation and adaptation to rural area of returning farmer after retirement. *J Korean Home Econ Assoc* 45(1), 9-21
- Park GJ, Yoon SD, Kang KH(2006) Factors effecting on the rural life satisfaction of returners to the farm after retirement. *J Korean Soc Rural Plan* 12(4), 63-76
- Rah IJ, Lim CY, Park SH(2008) Preparing for the retiring baby boom generation(RBBG) in Korea: from th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spectives. *J Korean Geron Soc* 42(4), 151-173
- Statistics Korea(2012) Data for the baby boomers in Korea
- Sunchang Country Office(2012) Ordinance on supporting for rural migrants
- Sung JH(2013) Returned family: not returned women. *Korean Rural Sociol Soc* 23(2), 91-138
- Sung JI, Kim SA(2012) The status and policy on the return-farm & return-rural of citizens. Korea Rural Econo Institute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2013)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 Yang BH(1998) Understanding multivariate data analysis. Seoul: Hakjisa
- Yoo JK(1998) The reality and counter policies of the return-farm & return-rural. *Korean Center City Environ Res* 34, 23-41
- Yoon SD, Kang KH, Park GJ, Lee JH(2005) Determinants of migration intention to rural area after retirement among urban residents in Korea. *J Korea Geron Soc* 25(3), 139-153